

포장과 물류

이 명 훈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Abstract

제품이 생산된 이후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가기까지의 제반 흐름을 물적유통(물류)이라고 한다. 생산성이 고도화 된 선진국에서는 물류 합리화를 통한 제품원가 절감이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의 수준 향상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포장은 수송, 보관, 하역, 정보와 함께 물적유통 5대 요소 중의 하나이며 물류과정 전체를 일관하는 기본 매체이다. 따라서 물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포장을 잘 꿰어야 한다. 물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류표준화가 중요하며 파렛트 표준화가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물류전쟁은 자기 진영의 파렛트 규격을 세계 표준규격으로 확대하려는 다투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표준으로 범위를 확대시켜가고 있는 우리의 표준 파렛트 규격은 1,100x1,100mm 규격으로서 10 여년의 확산 노력 끝에 현재 약 32%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준파렛트를 업체에서 채택하려면 먼저 파렛트 위에 적재되는 제품 포장이 적재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표준규격화 되어야 한다. 즉, 포장표준화가 파렛트 표준화의 선결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운반용 겹포장상자는 골판지상자이다. 회수용 플라스틱상자는 550x366mm 라는 기본 모듈치수로 대부분 통일되어 있는 반면 골판지상자의 경우 적용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표준치수 규격이 존재하고 있다. 골판지상자의 표준치수 규격은 KSA 1002에 69종이 규정되어 있지만 업계에서는 자기 제품에 맞는 포장상자를 설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표준규격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포장표준화는 치수표준화 뿐만 아니라 강도표준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제품보호의 적정화를 통해 즉각적인 재료비 절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장표준화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판지 및 골판지 제조기술이 더욱 향상되어야 하고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포장상자를 설계하여야 한다.